

강성 기아노조 '중도실리' 새바람

기노련, 현 집행부 노선 공개적 반기

"관성 파업은 노동운동 염증만 키워"

"무분별한 파업과 맹폭적 상급단체 복종으로 기아차에 대한 국민과 고객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 고객은 파업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20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등 강성 일변도로 치달아온 기아자동차 노동 조합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 파업을 준비 중인 현 집행부에 맞서 '기아노동자연대'(이하, 기노련)이 중도 실리를 표방하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기노련은 지난해 노조 지부장 선거에서 떨어진 가운데 중앙의장, 조학래 광주의장 등이 금속노조 탈퇴와 노동운동 혁신, 정치운동 타파 등을 내걸고 만든 조직이다.

기노련은 20일 소식지를 통해 "현 집행부가 사측과의 임단협 상견례를 서두르는 것은 금속노조 입장에 맞춰 파업의 선봉대 역할을 하기 위한 짜 맞추기 수순"이라며 "조합원을 파업 전술로 몰고가는 것은 올해 임단협에 악영향만 끼칠 뿐이다"고 현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타임오프제를 수용하는 대신 금속노조가 매년 가져가는 37억 원과 노조 자체의 수익사업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타임오프제를 명분으로 한 과파적인 노조활동은 회사를 맹들에게 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만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이날 임단협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사측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타임오프제를 협상 안건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가 무산되자 노조는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3만400여명으로 현대차 노조(4만4000여명)에 이은 금속노조 내 최대 사업장으로 올 초 부문파업을 포함 20년 연속 파업을 뒤틀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타임오프제(Time-Off)=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 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됐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제제한도'라고 부르며, 근로시간제제한도의위원회가 이 한도를 결정한다.

기노련은 지난 1일 노동절에는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에서 독거노인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이날 임단협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사측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中 휙쓰는 기아 '스포티지' '쏘울'

SUV 수요 급증... 판매량 작년비 350% 늘어

중국의 스포츠유트리티차량(SUV)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스포티지와 쏘울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국 자동차업체연석회의 자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1~4월 SUV 시장에서 구형 투싼 ix(중국명 ix35)를 투입한 현대차는 1~4월 SUV 시장에서 구형 투싼 1만9961대, 투싼 ix 4434대 등 총 2만4395대를 팔아 지난해 동기(1만3632대)보다 79% 신장된 실적을 올렸다. 기아차도 같은 기

간에 구형 스포티지 2만4176대, 쏘울 7490대 등 3만166대를 팔아 지난해보다 무려 351.5%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에 스포티지 R를 투입해 라인업을 강화하고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판매 호조에 힘입어 현대·기아차는 올 1~4월 중국에서의 SUV 시장점유율이 15.3%를 기록, 혼다(10.9%), 닛산(8.3%)을 제치고 도요타(17.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꽃 향 기와 떠나는 와인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와인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23 일까지 진행되며 와인 가격은 1만~3만원대.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금호타이어 '노노갈등' 법정 비화

강경파, 노조 집행부 탄핵 임시총회 요구에

집행부는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올해 임금·단체협약 합의를 둘러싸고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와 강경파 간 벌어진 노노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20일 광주지방법원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는 26일 '노조 집행부 탄핵

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이에 반발해 고광석 위원장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 총회 개최 밟의자를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4일 오후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노조 집행부는 공대위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의한 임단협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야욕만 드러낸 만행이다"고 비난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과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고광석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를 거친 사항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노조원들의 주도로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인정할 수 없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2077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원의 단결과 권리를 집행부가 앞장서 저하시켰다"며 집행부에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고, 공대위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며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 금속노조가 이를 승인하면서 26일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절차적 하자가 없어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품 단가 올려달라"

중企, 대기업에 요구... 생산중단 등 갈등 확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사이에 남풀단가 인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중소 남풀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에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기도 해

후유증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장재용 골판지를 만드는 중소업체 4곳은 대기업인 C사와 최근 남풀가 인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물공업협동조합 회원사 250곳 중 절반 이상은 고철 가격 인상분을 남풀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조합하지 않고 있다. 단조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비해 남풀 가격 인상 정도가 덜없이 모자라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단조공업협동조합은 "주요 원자재인 환동 가격이 지난 5개월 사이 13% 이상 올랐지만 남풀가는 도무지 인상될 기미가 없어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11만2910가구에 달하는데, 이중 공공 사업자의 미분양 물량은 103가구에 그친다.

그러나 LH가 지난 10일 발표한 4월 말 현재 공공 부문의 미분양 물량은 8272가구에 달하지만 정부 집계에

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실장은 "최근 분양수요 위축과 미분양적자 현상의 주축은 민간 부문이지만 정부가 좌우적으로 공공

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을 빠뜨리는 것은 착시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오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부 미분양 집계 8272가구 누락

LH 등 공공부문 빼... 통계 '착시효과'

정부의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에 공공기관의 미분양 물량이 빠져 있어 착시 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부동산씨브에 따르면 정부가 매달 초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사업주체는 빠진 채 민간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만 수록돼 있다.

한영진 실장은 "최근 분양수요 위축과 미분양적자 현상의 주축은 민간 부문이지만 정부가 좌우적으로 공공

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을 빠뜨리는 것은 착시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오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편 010-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빼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편 010-8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김자령 1층)

토지매매

위치	면적(㎡)	홀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신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주군	15,300평	조제	35만원
동림동	4,468㎡ (1,352)	준주거	360만원

건물매매

임대	월세	매매금액
현대	37억원	3,300만원
현대	7억원	1,700만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현대	4억	1700만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현대공인증개사

T. 062)871-1900, 010-2006-0115
상무 우편번호에서 50m지점

토지 매매

면적(㎡)	층	면적(㎡)	비고
1,652㎡	14층	1,652㎡	14층
2,247㎡	14층	2,247㎡	14층
826㎡	14층	826㎡	14층
3,422㎡	14층	3,422㎡	14층
22,000㎡	14층		